

사군자 기질검사로 보는 삼국지 인물분석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군자 기질 검사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군자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비롯된 4명의 뛰어난 군자의 인품과 덕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사군자 기질검사는 사군자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기질분류 방식이다. 사군자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하며 이해하기 쉽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삼국지의 인물들을 동양적 성격분류 해석 방식인 사군자 기질검사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삼국지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방통, 조자룡, 조조, 순욱, 손권, 노숙, 주유, 여포, 원소, 손책 등의 인물들의 성격을 사군자기질분류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기질에 따른 리더십의 특징과 개발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개개인의 인물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며, 오늘은 개관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인물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조운 - 조자룡

사군자기질분류 방식에서 볼 때 조자룡, 손책, 황충, 노숙, 원소, 손권은 매화기질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자룡, 손책, 황충은 외향매화 기질에 속하고, 노숙, 원소, 손권은 내향매화 기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매화기질은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조직에 우선적으로 충성 하는 사람들이다. 조자룡의 충성심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조조의 백만대군 속에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구출해낸 사건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비를 보좌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황충 역시 나이 많은 고령이 되기까지 충성된 장군으로 용맹을 떨친다. 손책은 21살의 나이에 오나라의 기틀인 강동81주를 평정하고 소패왕이라

는 명성을 얻는다.



노숙

내향매화기질인 노숙은 주유의 참모로 성실과 근면함으로 충성되게 상관을 섬긴 참모중의 참모였다.



손권

원소와 손권은 안정지향적인 내향매화 기질의 리더였다. 원소는 낙양성을 불태우고 도망간 동탁을 추격하자는 조조의 제안과는 달리 지쳐있는 군사들과 현실적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안정적인 것을 선택한다. 또한 원소는 이각과 곽사로부터 도망한 천자가 낙양성에 원조를 요청했을 때 그의 참모 저수가 '지금이야 말로 천자폐하를 보위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천자에게 갈 것을 요청하였지만, 안정을 중시 여기는 원소는 천자를 옹위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하북땅은 풍부한 물자와 넉넉한 군비가 있기 때문에 구지 천자를 보위하여 많은 제후들로부터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외향대나무기질인 조조는 천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천하패권을 장악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손권의 방어적인 리더십 성향은 대나무 기질인 조조와 제갈공명의 계략에 힘없이 무너지는 단점을 보인다.



장비

유비, 유기공자, 장비, 여포, 동탁, 마초는 난초기질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비와 유기공자는 내향난초 기질에 속하고 장비, 여포, 동탁, 마초는 외향난초 기질에 속한다. 난초기질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며 조직에 얽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타고난 기술자들이며 용사들이다. 이들이 무기를 다루는 기술과 운동신경은 천부적이다. 많은 스포츠선수들과 예술가들이 난초 기질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비

내향난초인 유비의 성격은 유유자적하고 온화하다. 유순함이 과하여 우유부단하기까지 하다. 미리 결정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한다. 유비 현덕의 장점은 겸손한 리더였다는 것이다. 군사부일체를 중시했던 시대적 상황이 왕족이면서 겸손했던 유비의 덕망이 장비, 관우, 조자룡, 제갈공명, 방통과 같은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원이 되었다.

형주태수 유표의 장자였던 유기공자는 천성이 여리고 착했다. 유표가 죽을 때 유기에게 형주를 물려줄 것을 유언하였지만, 채씨 일가족의 계략에 의해 유언은 왜곡되고 작은 아들 유종에게 형주태수 자리가 계승된다. 유기는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강하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된다.



여포

외향난초 기질인 장비, 여포, 동탁, 마초는 최고의 전사였다. 싸움에서 이들의 명성은 대단했다. 외향난초 기질의 단점은 충동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술과 여자를 절제하는 것이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뛰어난 전사였지만, 지략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여포는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의 주군을 배신했고, 장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 지켜야 할 서주성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다. 장비는 결국 술에 취해 부하를 폭행한 일 때문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다. 동탁과 여포는 초선이라는 절색미인 때문에 갈라서게 된다.



관우

관우, 방통, 서서는 국화기질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화기질의 사람들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며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은 교육자들이다. 관우는 내향국화 기질에 속하고 방통과 서서는 외향국화 기질에 속한다. 관우는 유비를 만나기 전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관우는 평상시에는 과묵하고 조용하지만, 신념을 위해 싸울 때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는 한동안 유비의 아내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조조에게 항복했지만, 유비를 잊은 적이 없으며, 유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조의 모든 환대를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오관돌파를 감행한다.



방통

사마휘가 유비에게 와룡과 봉추 중에 한 사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와룡은 제갈공명을 말하고, 봉추는 방통을 일컫는 말이다. 방통은 외향국화 기질이다. 외향국화 기질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열정이 많아 자신의 생각을 짧은 시간에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약하고, 횡설수설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 때문에 그들의 재능이 무시되기 쉽다. 실제로 방통은 주유가 죽은 후 노숙의 추천으로 손권에게 갔었다. 하지만 내향매화 기질인 손권은 예의 없고 정돈되지 않는 방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권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조에게 가려고 했다. 그러자 노숙은 조조보다는 유비에게 갈 것을 권했다. 유비 역시 방통을 만났을 때 혼란스럽고 그의 재능을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마한 고을인 뇌향현의 현령으로 임명했다. 후에 제갈공명의 조언을 듣고 방통을 가까이 하게 된다.

제갈공명, 순욱, 조조, 주유, 손상항은 대나무기질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은 뛰어난 분석력과 지략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미래를 예견하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나무 같이 곧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지적이고 똑똑한 전략가들이다.



제갈공명, 순욱은 내향대나무 기질에 속하고 조조, 주유, 손상향은 외향대나무 기질에 속한다. 내성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지만, 세상에 잘 나서지 않는다. 제갈공명 역시 은둔 생활을 했었다. 와룡(누워있는 용)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던 제갈공명을 깨운 사람은 유비였다. 20살이나 나이 많은 유비가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공명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끌어내었다. 유비는 제갈공명의 지략을 통해 뜻을 이루게 되었고, 제갈공명은 유비의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이상인 천하삼분지계를 펼칠 수 있었다.

순욱은 조조의 최고 참모이자 전략가였다. 낙양의 천자가 조조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조조를 설득한 사람이 순욱이었다. 순욱은 천자를 등에 업으면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 조조가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조조가 전쟁 중에 펼친 모든 전략과 정책은 순욱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 조조는 신하들이 위공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아침하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가 위공의 자리에 앉는 것은 개혁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결국 조조의 미움을 받게 된 순욱은 자신이 더 이상 조조 밑에서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알고 자결하게 된다.



외향대나무 기질인 조조와 주유는 뛰어난 전략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개혁의지로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 나간다. 이들은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안목이 있으며, 항상 참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사람들이다. 조조에게는 순욱이 있었고, 주유에게는 노숙이라는 참모가 있었다. 외향대나무 기질은 항상 조직의 중심에 있으며, 조직을 위락편락한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